

투데이 칼럼

메시지 전달능력

키 커뮤니케이션은 콘텐츠와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줄기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만들기가 필요하다. 핵심을 꿰뚫는 내용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므로 핵심 콘텐츠가 설득력이 있으면 스타일(표현력)이 다소 미흡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력이 아무리 좋고 깔끔해도 틀을 만든 내용이 없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물론 내용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노력과 학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내공이다. 내용이 짧으면서도 자세하고 함축적이면서 이해가 잘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요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써 놓은 글이나 말을 접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상대에 대해 평가를 바로 하게 된다. 메시지에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힘 있는 메시지이고 힘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힘 있는 메시지는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고 힘없는 메시

는 듣고 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은 대부분 힘없는 메시지가 된다. 상품 마케팅이나 정치 캠페인 모두 국민을 설득하는 스피치로 해야 한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가 짧고 명확해야 한다. 상품 마케팅이나 선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특히 내용과 포장이 모두 좋아야 그 스피치는 성공할 수 있다. 상품, 사람, 조직이건 내용과 포장이 다 좋아야 알아주는 시대이다. 사람도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상품마케팅이나 정치나 '규정하기'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하기'에서 유리한 틀을 선점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연설에서 인터뷰에서, 상품 광고에서, 현수막에서 토론에서 한 줄의 '강판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짧고 구체성 있게 우리 상품과 후보의 핵심컨셉을 알려야 잘 하는 스피치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바쁜 삶을 살고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알릴 수 없을 때 그 상품이나 후보는 무관심이 영역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생동감 있고 구체적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눈에 보듯이 시각적으로 말하고 그 표현에 열정과 성실함이 살아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고교생들의 발표 시간에 '성실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우리 아버지는 과일가게를 하며 30년 동안 저울눈금을 양심적으로 숙이지 않아서 성실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해서 칭찬을 받았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원칙은 많이 있으나, 다음 9개 원칙을 소개한다. 핵심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단순함의 원칙, 생동감의 원칙, 긍정의 원칙, 공감의 원칙, 스토리텔링의 원칙, 시각화의 원칙, 유머의 원칙이다. 이 원칙과 사례를 잘 활용하는 스피치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성공하고 싶다면 핵심 콘텐츠와 스타일(포장)을 학습하는 스피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사설

전주 쓰레기 대란

전주시 쓰레기 대란 사태가 갈수록 심각하다.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번 전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의견 대립으로 촉발됐다. 그러면서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난하는 도민 여론이 증폭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불만을 불모로 한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 방해 행위와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 중단을 강력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수거가 멈췄다. 성상검사단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주민간담단이 종량제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 내용물을 검사하면서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시민단체는 "주민협의체가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이 선정한 주민 대표 6명을 모두 추천하지 않고 절반만

추천한 전주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례 등 어디에도 주민대표 선출 절차에 한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전주시내 쓰레기 사태는 주민협의체와 위원장 등의 불법적인 주민 지원금 정용·횡령을 방치한 전주시 책임이 크다고 비난한다.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삼천 차고지, 효자공원묘지 등에 임시 아적장을 마련했다. 쓰레기 소각이 계속 미뤄질 경우 하루에 1억 원씩 들어 타 지역 처리장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년 전에도 쓰레기 처리장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협의체가 충돌해 쓰레기 대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전주시는 이번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처리장 운영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대 문학상 작품 공모

전북대가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 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모전은 총상금 800만 원 규모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홍보 기념 사업회,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달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시와 단편소설이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 작품은 전북대 신문 기념 특집호(10월 13일 예정)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 신문방송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북대는 지난 2001년부터 이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 작품 현상 모집'이다. 최명희 작가 역시 지난 1971년 '정목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당선된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권상혁·김보현·김학찬·손홍

규·이갑수·전아리 등 소설가와 박성준·백상용·이혜미·조을 '조운희'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한편 이병기(李秉岐, 1891~1968)는 시조 작가 겸 국문학자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호는 가람(嘉澗)이며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생하였다. 한성사범학교를 나와 경성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많은 시조를 발표하였다. 최명희(崔明姬, 1947-1998)의 본관은 삭녕(朔寧)이고 전주 출생이다. 부친의 본향인 전북 남원시 사계면 서도리 노봉 마을은 삭녕 최씨의 500년 세거지(世居地)로, 그의 대표작 '혼불'의 주 배경 마을이다. '혼불'은 최종 출간 당시 집필 기간만 17년이 넘게 걸린 결과로서 작가의 투혼이 발휘된 작품이라 하여 높이 평가되었다. 전북대 문학상이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만 타이베이 코로나19 풍경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카불 공항 이륙하는 미군 수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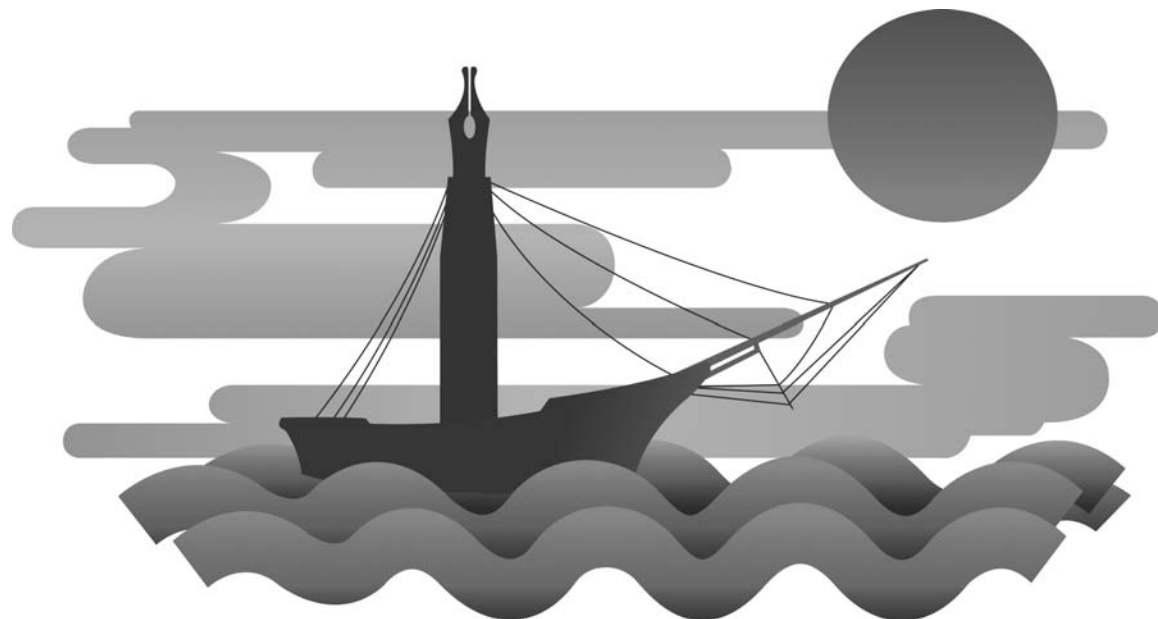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31일 시한을 앞두고 지난 28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미군 수송기 1대가 이륙하고 있다. 자살폭탄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의 유해가 이날 미국으로 향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과 아프간 민간인들의 대피 작전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미국방부는 대피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이 카불 공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